東亞日報
夕刊 七月十一日(日)
發行兼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illegible]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北中一帶에戰雲急迫

日中兩軍再次交火
于今까지雙方對峙中
日本軍、龍王廟와東辛莊占領
陸軍首腦重要協議

【北平十日發同盟至急報】龍王廟附近의 中國兵一個少隊는 東辛莊(蘆溝橋東北)附近의 兵力不明의 中國部隊와合州 同地一帶를 占據하엿으므로 日本側은 一部隊로써 追擊砲의 砲擊을開始 應戰하야 十日午後九時十五分 龍王廟의 中國陣을 夜襲하야 此를占據하는同時에 東辛莊까지도 占領하엿다

【北平十日發至急報同盟】中國兵은 前日日中雙方의約束에依하야 蘆溝橋附近의 永定河右岸에 一兵도 남기지안을터이엇으나 中國側은 이를蹂躪하고 十日 午後七時 永定河西岸과 蘆溝橋驛附近으로부터 日本部隊에 追擊砲의 集中射擊을 開始하엿다

【東京電話同盟】[illegible] 陸軍首腦部는 事態를重大視하고 十一日午前一時 陸相官邸에 杉山陸相梅津次官後宮軍務局長秦新聞班長以下 關係官全部參集하야 現地로부터의情勢에基하야 緊急對策에對하야 重要協議를하엿다

中央軍四個師에
蔣氏出動準備命令
全飛行隊에도戰鬪命令

【漢口十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日 廬山會議의結果 徐州를中心으로 駐屯中의中央軍四個師에對하야 十一日 拂曉를期하야 河南省境에 集中進擊準備를 命하엿다

【東京電話同盟】十日午後十一時 陸軍省에 左의公電이 到達하엿다 蔣介石氏는 四個師를 石家莊附近에 急集하도록 命令을發하고 全飛行隊에對하야 戰鬪命令을下한듯하다 (以上號外再錄)

深更까지交戰繼續
陸軍省發表

【北平十一日發同盟】深更의 龍王廟의 戰鬪에서 日本軍은 上日午後十時 中國軍에게 多大한損害를주어 이를擊退하엿다 其後 [illegible] 中國軍은 再次逆襲을試하여 [illegible] 北平城內는 大緊張을 보이고잇다

【東京電話同盟】陸軍省發表(其一) 十一日午前五時 現在의 狀況은 左와如하다
一、西苑에 集結한 中國軍은 [illegible]
一、北平天津間鐵道線路는 [illegible]
一、[illegible]

雙方戰鬪激甚
北寧線再次運轉休止

【天津十一日發同盟】[illegible] 日中雙方의 戰鬪는 [illegible]

【天津十日發同盟】北寧線天津北平間列車는 十日午後四時부터 運轉을休止하엿다

三內親王殿下 海軍館을御見學

【東京電話同盟】[illegible]

國府外交部
日本大使館에抗議

【南京十一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illegible] 日本大使館에對하야 抗議 [illegible]

蔣氏抗日方針決定
如何한妥協條件도拒絶

【漢口十一日發同盟】[illegible] 蔣介石氏는 [illegible] 對日抗戰方針三項目을 決定하엿다
一、一切이를拒絶하라
一、一步할지라도 退去를不許한다
一、必要한境遇는 犧牲者를 아끼지말라

[illegible]
一、日本軍의 正式謝罪及責任者의處罰
一、中國軍民 及砲擊에依하는 建物의 損害賠償
一、不祥事件의 再發防止와 日本軍今後의 保障을要求한다

北中形勢重大化로
臨時緊急閣議開催
今後는官邸에서各閣僚待機
五相會議도招集!

【東京電話同盟】北中國의 事態再惡化에鑑하야 政府는 十一日日曜임에도不拘하고 臨時緊急閣議를 열기로 決定하고 風見書記官長은 十一日午前八時半 近衛首相을 永田町의私邸로 訪問하고 이러가지協議를하엿다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杉山陸相以下 首腦部는 [illegible]

【東京電話同盟】政府는 [illegible] 外相이 [illegible] 十一日午前十時頃 首相官邸에서 近衛首相、廣田外相、杉山陸相、米内海相、賀屋藏相等 五相會議를열고 北中事件에 對한 日本의 根本態度를 決定하엿다

陸軍省全員
非常召集

【東京電話同盟】陸軍省은 十一日午前二時 [illegible]

戰時體制의
情報陣
外省首腦部會合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日曜市場氣配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十日午後七時狀況

【東京電話同盟】[illegible] 十日午後七時 現在의 狀況은 如左하다
一、約百名의 中國軍은 [illegible]
一、永定河西岸의 中國軍約五百名은 [illegible]
一、北寧線은 運行을 停止하엿다

教育總監部香月中將
直路○○으로向發
駐屯軍司令官으로任命

【東京電話同盟】十一日陸軍省發表 教育總監部本部長 香月中將은 十一日午前八時 陸相官邸에서 杉山陸軍大臣으로부터 電報訓令을받고 午前八時十五分 官邸를 辭去하야 參謀本部로 向하엿다 同中將은 今日午前十一時 立川發 軍用飛行機로 直路目的地로向하엿다

【東京電話同盟】十一日午前十一時三十分 陸軍省 發表
補 中國駐屯軍司令官 陸軍中將 從三位勳三等功五級 香月淸司
中國駐屯軍司令官 陸軍中將 田代皖一郎
參謀本部付被仰付

田代軍司令官
病으로辭任

【東京電話同盟】[illegible] 田代司令官은 [illegible] 病으로 [illegible]

于今까지의戰況
北平武官室發表

【北平十一日午前九時發同盟】北平陸軍武官室發表 中國軍의 破約的行爲에 日本軍은不得已 龍王廟及東辛莊을 攻擊하엿다 [illegible]
上兵共히八名 現在까지에 判明된者는 左와如하다
△戰死 山崎一等兵
△負傷 山下中尉 [illegible]

全員을總召集
各要所에는憲兵의警戒網
參謀本部大緊張

【東京電話同盟】[illegible] 參謀本部는 日曜日임에도 不拘하고 [illegible] 全員總集 [illegible] 香月中將이 [illegible]

蘆溝橋演習과
條約上見解

【東京電話同盟】蘆溝橋事件當時 日本의 北中駐屯軍當局이 現地에서 演習을하고잇든것에 關하야 日本當局은 右演習이條約、其他權利에基하야 當然한 行動이라고하는데 그根據가될 條文은 左와如하다
一、北淸事變에 關한 一九〇〇年 議定書 第九條
[illegible]

文(一九〇二年七月)第四節 [illegible]

第三艦隊司令官等
首腦部重要協議

【上海十一日發同盟】[illegible] 長谷川第三艦隊司令長官은 [illegible]

根本方針을
廟議에附議

【東京電話同盟】中國側의 [illegible] 日本의 根本方針에 對하야 [illegible]

海軍省
緊急首腦會議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十一日午前四時半 海相官邸에 [illegible]

外相에報告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森島參事官歸任

【東京電話同盟】森島北平大使館參事官은 十一日午後三時 北平으로 急遽歸任하기로 되엿다

近藤博士創製
ヘロイン コデイン 阿片 コカイン 其の他 塩類中毒に
モルヒネ
모루히네 헤로인 阿片 코카인 其他鹽類
中毒患者에게
革命的福音!
福壽仙의作用과特長
[illegible]
特約店募集
包裝 [illegible]
製造元 株式會社 大阪製藥公司 大阪府布施市下小阪
FUSUSEN
후-스-세-ㄴ
福壽仙

肺病 肋膜炎 全快法
無料送呈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어제北、오늘엔南에 好雨의連續線!

依然 全朝鮮은霖雨期에

【仁川支局電話】 七百四十 미리와 저기압은 송화강(松花江)연안에서 저미하고 황해죽선은 북조선으로 부터 황해도를 거처 황해중부에 뻗쳐잇으며 고기압은 『캄차카』동부에 잇다. 이로 인하야 조선은 의연 우기(霖雨期)에 들어잇는데 선조선적으로 비는오겟으며 나남조선에 만흔비가 내릴것 같다.

七일오전 六시현재의 각지 우량은 다음과 같다.

▲新義州五八▲平壤二〇▲仁川二▲京城一〇▲全州一▲中江鎭三七▲雄基二八▲淸津二五▲元山一〇▲釜山一

그런데 금년의 강우는 예상스럽게도 어제는 북조선에 오늘에는 남조선에 이러케 격일하여 나림으로 이번비로 농사에 충분하겟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부분적으로 뻣혓지 방에는 비가부족하나 의연장마는 계속되어 우려는 조금도 없다 한다.

拳銃앞에선"男便의貞操"

青樓에오르든乃夫銃殺한 前訓導金順三公判

家庭不和와人生悲劇의二題

明日、新義州에서開廷

【新義州】 남편이 방탕한생활을 하는것을보고도 그안해된 사람은 참고잇어야할가? 안해에게는 정조를요구하면서도 남편된사람은 무절서한치정행위를하여도 용서할가? 방탕한남편들에게 무참히 학대를 당하면서도 한마디의 반항조차못하고 눈물과한숨으로 지내어오는 온세상안해에게 남편의정조(貞操)에대하야 새로운 게시(啓示)를 준 김순삼(金順三)의 남편총살사건은 드디어 十二일오전十시 신의주지방법원제一호법정에서 길천(吉川)재판장주심 형(邢)、곡산(谷山)양판사배석 좌야(佐野)검사입회、이회적(李熙迪)변호사열석하에 개정하게되엇다.

惡緣을死로淸算!

愛兒三名과 한께、滅族을企圖

犯行까지의悲壯한心境

봄날의 향기놓은 四월二十九일 새벽—밤새도록 기다리든 남편이 돌아오지안흐므로 그는 새벽 六시경 신의주로 건너와 남편의 친우인 정(鄭)모의 집에가서 남편이 전부터 관계를 맺어오는 최산월(崔山月)( )의 방에서 자고 잇음을 알고 곧 달려가 기생의 치정에 도취해 잇는 남편을 깨워 가치 안동으로 건너가기를 강요하엿으나 남편은 『죽어도안가겟다』고 말하는 일방 『인센 너와 살수없으니 이혼하자』고 나까지하며 이에 부동한 최산월도 반성대는 언사로 모욕하므로 분한남아지 최산월에게 덤벼들엇으나 도리어 광몰 캐넘어뜨리엇다 한다.

이에 격분한 그는 자살할 결심을 하고 집에돌아와서 먼저 아이들도 죽이고 또 남편도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두고간 『고로니알시』권총을 내어가지고 삼남인 상호부터 쏘려하엿으나 손이 떨려 그대로 세아이는 재우고는 七시二十분경하야 다시 신의주로 건너와서 최산월방에 뛰어들어 몃마디말을 주고받은끝에 누어잇는 남편을 향하야 선총을 연발하야 아편을 배와 바른다리를 쏘앗다.

그리고 이어 자기도 죽으려고 총뿌리를 자기가슴에 대엿더는데 거꾸러젓든 남편이 다시 일어서며 선총을 빼앗으려 하든틈에 탄환은 빗나가 다시 일어서 바른편다리를 맞고 거꾸러젓다 한다.

이에 격분한 그는 자살을 결심한 바 남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하엿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서에 자수하엿다 한다.

조금후 정신을 차린 그는 인력거를 잡어타고 전기 정모(新義州)의 집에 가서 『저는 남편을 죽이엇으니 경찰서에 알려주시오』하며 맛겨두엇든 남편의 양복을 가지고 다시 최산월의 집으로 가서 의식을 잃은 남편에게 입혀고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말하고 잇을지음 급보를 접하고 달려온 신의주서원에게 체포되엇든 것이라한다.

그후 조흥갑은 도립병원에서 봉합치료를 하엿으나 동일오전八시경에 드디어 절명하엿다.

懺悔의눈물속에 母子가對面

家庭不和의 이慘劇

안해로써 사랑하는 남편을 권총으로 쏘아죽인 김순삼은 기간 신의주법원 좌야(佐野)검사의 손에서 취조를 받엇는데 취조실에서 그는 청회의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내가 집에온후에 그방에서 떠낫든지 내가 권총을 가지고올때 세관리에게 발각이 되엇든지 또 내가 권총을 사용할줄 몰랏든들 이러한 무서운 범죄까지야 하엿겟나요? 모—든것이 운명이니 제가 지은 죄대로 처분하여 주세요』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잇다고한다.

더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코 고아가된 세남매는 매일같이 어머니가 갇어잇는 감옥에서 나오기만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잇다는바 검사가 그남매를 증인으로 불러볼때 아래와같이 말하엿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야요.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욕하고 때리기 잘합니다. 그러고 남의 아버지처럼 좋은 장난감을 사다주지도 안아요. 어머니가 사다주는 누나를 때려 한답니다. 요전에는 누나를 때려 한답니다. 안 하교에도 못갓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와요?』 눈물어린 목소리로 말하여 취조관까지 울리엇다 한다.

結婚에기인한 안해의生活

피고 김순삼은 안동현 경찰서 고등계 특무형사 조흥갑(趙興甲)( )의처로 十五세시에 원산(元山)보통학교를 졸업, 十八세에진성(進成)여자고등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 일시 모교훈도로 교편을 잡아오다가 二十一세시에 당시는 모회사 서원(書員)이든 전기 조흥갑과 결혼하엿든데 남편이 떠도는 사업이라 얼마를 갈이잇지못하고 본가에서 홀로 쓸쓸히 지내는중 二十三세시에 남편이 동경모병원에 근무하게되므로 그곳에가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남편이 만주국 여순(旅順)경찰서에 근무하게되매 이래 안동현경찰서에 고등(大和)계로 재임하여왓다한다. 그러든 중 원래 남편인 조흥갑은 방탕한기질의 소유자로 오래전부터 안동현、신의주 양곳에정부를 두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므로 가정안에는 항상 파란이 그칠날이 없엇다 한다.

그리하야 당시 받고 잇는 월급 五十원은 이러한생활의 비용으로 소용되고 가정에는 하로에단나는 장답 상호(尙浩)( )외 두아이가 잇음에 불구하고 생활비는 한달에 五원내지 十원밧에는주지안허그 지나이래 본가에서 얻어다가 살림이어온것이라한다.

김덕봉(金德奉)( )의二남 용휘(龍輝)( )은 그의처 양월금(楊月今)( )과 결혼하야 재작년 시월부터 봉천에왓으나 별로 바다에 따로 나가서 벌이없이 누어 고생하자가 약 二년가량 되니 별별없이 지내엇다. 그런데 남편 관원은 살는 남이지지 안어서 불화만으나 발은 전연못할 으로 그원인은 알수없다고 현장

乃妻의목을絶斷 男便도短刀로自刎

昌寧에疑問의殺人

【釜山】 八일정오경 다른가족들이 없음을 기회로 그전날부터 한생활을해오든 안해를 약오후가 량되는 예리한 칼로 목전후를곤 어서 대동맥은 물론 기관식도를 끈허서 즉사케하고 그칼로 자기의 목을끈허서 명재경각의 위독에이른 참사가 경남창녕군영산면 신제리(昌寧郡靈山面新堤里)에서 생겻다.

은 선렬이 흘리하야 목불인견의 참상가운데 무시체가 누은것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밥에나간 가족들에 알린것이라고 한다. 이급보를접한 소관 창녕서(昌寧署)에서 와 밀양검사국(密陽檢事局)에서 출동하야 그현장과 시체와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는중이라고 한다.

불낫傍聽券

二百매 발행한 방청권은 벌서 없어저 오날 공판정에는 만원의 성황을 이룰것으로 그가 과연 어떠한 진술을 할는지 크게 주목된다.

蓮池町에棄兒

十일밤 十시경 부내 연지정(蓮池町)七四번지의一九호 이종훈(李鍾勳)집 문앞에서 난데없이 어린아이의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니기에 집안사람이 나가본즉 생후 한달쯤되는 귀엽게 생긴 옥동자가 무심한 엄마를 부르고 잇엇든것이다. 이집에서는 바로 어린애를 데려다가 보호중인데 가난한탓으로 어머니하나와 새로 인연뗏게 되엇다한다.

雜貨商專門盜로 移動路商을開始

永登浦에서大盜逮捕

【永登浦】 지난西월四일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四百七十二번지 잡화상이만준(李萬俊)방에 침입(侵入)하야 전후二회로 六백여원의 절도죄해사건을 필두로 六월二十七일까지에 영생리(永生里) 四백二十三번지 잡화상 四百四원의 절도죄해사건을 비롯하야 영등포정 四백七十四번지 황인종(黃仁宗)방 잡화상에 五十여원、동정 四백여원의 절도사건이게 속정 범행함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서는 활동을 개시하엿든 바 지난 十일오후六시 영등포 우편소(永登浦郵便所)앞 우시장 부근을 배회하는것을 체포하게 되엇다. 범인은 영등포정(永登浦町)에 현주소를 둔전남 화순군외북면오리(全南和順郡外北面五里) 라성만(羅成萬)(二二)으로서 전성이 포악해서 개성소년형무소(開城少年刑務所)와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절도죄로 각一년간 복역한 전과二범의 불순한자로 금년三월十七일 전주형무소를 출감하자 즉시 칼을가지고 전기 잡화상에 침입한것이라 집중(?)해 四백여원의 절도죄를 감행한 돈으로 물건을 사서 각처로 단목으로 행상을 하며 다수 변장하고 피묘한 방법으로 흥처여 구루마 또는 자전거로 용하야 수시 변장하고 피묘한 방법으로 ...

屍體搜索은 依然不如意

사법성차은 서두취조를 개시

永宗島의顚覆事件

【仁川】 누보—인천근해 영종도(永宗島)전마선 전복사건은 기보한바와같이 회사측과 승선자간에 무려 十四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의 차이를 보히고 잇든바 그후 실탄 중명을 얻든것은 오즉 시체 가 나타나는가 행방불명자중 생환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도저히 알길이 없는데 인천서(仁川署)는 이에 노력중이나 개소가 급류지 대이여서 시체수사도 곤난하거니와 전연 발견되지 안허 초조중으로 사법계(司法係)에서는 十일부터 전마선 선부 구용군(具龍君)(三)부터 취조를 개시하엿는데 그주이와 계속수사중인 현장의 상황이 여하히 판명될가가 주목처라 한다.

蛤洞空家에 乞人이餓死

十一일 오전十一시三十분경 부내합동정(蛤洞町)二五六번지에 五十세가량되어 보이는거지가 죽어잇어 검시한결과 주림에 못견디어 아사한것으로 시체는 행려병사망자로 경성부에 인도하야 매장케하엿다 한다.

安養窃盜橫行

一夜八處에發生

【永登浦】 시흥군서이면 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는 요사이 경부선철도복선공사 조선질소비료 공사 안양정류천지공사 철도공사리재지 설로공사등으로 요사이외방으로 모여든 로동자들은물론 여토목여명으로 온동리를팀질듯 하는이때에 일반시민은 불안을 갖게되여 주의는거듭하야 왓스나 지난四일밤에 八처의 절도사건이 발생이래 五일의 一처로 가구 놀루는 커다란종종으로 만은조심을보게 되엇스며 이어모한 七일에동면호계리(虎溪里)의 황소七十원 자리를도난케 되엇는바 전후十여건오로 일반시민은 더욱불안에 싸이엿다하며 요사이는 주재를비롯하야 청년단소방조등으로 매야새위가며 그경계를 하여오나 오날까지 그자취조차 몰라경게당국에 큰고통을주고 잇다고한다.

우리딸찾어주오

부내 현저동(峴底洞) 四十六번지의 三三호에 거주하는 김원근(金元根)의 딸 정숙(貞淑)(三)이가 十일 아침 어머니가 잠간 박에 나간틈에 집을 나와 돌아오지 아니하니 찾어달라고 부모들이경찰에 호소하여 왓다.

茂山鐵道着工

二千餘萬圓의工費로

무산(茂山)개발에 따른 철평(鐵平)의 수송철도는 조선철도의 함북선(咸北線)을 광괴(廣軌)로 개량하여 이것에 당하려고하고잇는데 조선철도에서는 이미 동선(六十키로)의 중간에잇는 무산수도(三키로반)공사의 제一회치량조사를 종료하고 근근 다시 동사의 동야기사(藤野技師)를 파견하야 제二회의 실측에 착수하야 금후 착공의 예정이라 그리고 동수도의 완성은 三년을 요할터이므로 개통은 그이후 로될터이다 그런데 동선을 단선(複線)으로할까는 제철소의 동경찰량여하에 잇는데 복선이되면 공비는 二千萬원을 요할것이오 단선으로하드라도 六百萬원은 요할모양이다. 어쨋든 무산의 개발과 제철소의 개설은 기정한 사실로 조선에서는 규모의 여하를 가리지안코 철도공사를 착수할방침이다.

競技더욱白熱化

雨中임도不拘、大會는如前盛況

第二日圍碁選手權大會

본사하에부주최 제一회 전조선 위기선수권대회(圍碁選手權大會)제一일 오후四시四十분까지의 경파는 금일조간에 보도한바와갈거니와 유진하(兪鎭河)、정귀춘(丁貴春)량씨의 대국은 四시간반이란 긴시간을 걸어서 결국 유씨의 승리로끝낫고 시간이갈수록따라 경기는 더욱 백열화하는동시에 가선수들의 투지(鬪志)가 더욱 왕성하야 만천시간이되어도 맛창을 채처노코 대국에만 열중하는 형편이엇다. 이리하야 밤이 늦어가는것도 잇고 선수는 대국을 계속하고 관람객들도 자미와 흥분에 붓잡히어서 끝까지 열심히보고잇엇다. 이때문에 제一일은 밤十一시에야 겨우 마감하엿다.

제二일 금十一일은 오전九시부터 시작하엿는데 금일 정오까지의 전적을보면 각선수의승패가상반하야 최후의 우승을 예측키 어려우리만치 경기는 더욱 긴장화

하엿고 비는 모양이엇스나 경기장은 대만원을 이루어 이리하야 오전중에서 진행되고 잇다 이러케 나가면 결국은 선수권 획득자를 뽑기위한 흥미잇는경승전까지 잇어야할것으로 예상된다. 오전부터 비가 나렷지마는 관람객은 더만히 늘어 대회는 성황리 진행되고잇다(十一일정오까지)

변으로 주간 혹은 야간에 당하하여 방문을 버리가지고 왓다가 ...

그날그날

(陽五月十二日(月曜))(陰六月五日(辛巳))

日出前六、二〇 日入後七、五五 月出前九、四〇 月入後一〇、一六

滿潮 釜山前一一、二五 後一一、二〇 仁川前七、五〇 後八、二〇 南浦前一一、一五 後一一、四三

三重苦의聖女헬렌·켈러 (五) "廿世紀奇蹟"의半生

三重苦의聖女今朝上陸

"空氣는부드럽고 感觸이매우조타"

헬렌·켈러女史의 朝鮮첫印象

【釜山支局電話】 三중고의성녀 『헬렌·켈러』여사는 十二일 오전七시 부산입항의 흥안환(興安丸)으로 조선땅에 첫발을 붙이게되엇는데 기선에서는 비서 『탐슨』양에게 부축을 받어 내리엇다.

부산항에 내릴때 부두에는 기독교 관계자 一千여명의 출영뿐으로 자못 쓸쓸한 기분이 떠돌앗섯는데 『스팀』에서 신문기자단과 회견하고 조선에대한 첫인상을 질간 이야기하엿다.

이것은 경성여고보 (京城女高普) 교론 고본(高本)교장으로부터 온 반가운 편지다。동교 육상선수인 영순(李榮順)양이 지난달 二十一日 경성 운동장에서 연습하다가

米國盲人協會위에 寄附募集에活動

聖女도失戀에는落淚

지내고 내일아침에는 서울(京城)에 하야 떠나게 되엇는데 차안에서 배에 내려보섯다。용모

『우리는 부산에서 오후 (一時) 문을 출게되엇다하다 ...

經過良好한李孃

『중태엇든 이영순(李榮順)양은 그후로 경과가 극히 양호하야 이삼일전부터는 의식도 회복하고 상처도 ... 제사를 보이여 인계는 궁지를 수없는 압도(壓倒)에 이른것을 입 경성 운동장에 어머니의 정성을생각할때병세의 호 악금 눈물겨웁다고 한다.

—여인—

『풍미의 탐슨』양이 아닌 젊은 을변이 수연다. 『탐슨』양은 『스코틀랜드』의 해입 전후로도 듣는 사람으로 하야금 더 한층 반가움게한다. 그중에도 뜻밧에 운동장에 실수로 이일을 이르킨이생은 배입 병석에우은 이영을 찾어 위안해 주는 광경은 보는사람으로 하

—동양—

렌』의 집에 이름만은 비서이나 하녀모양으로 살아왓는데 차차 수완을 보혀 一九一四년十월부터 지금까지 二十여년간이나 『헬렌』의 비서로서 일을 보아 금번 방문에도 동행하여온다. 그러나 제二 『새로운 성』강연여행때 입시 『탐슨』양은추가국하엿엇는데 이것이 『헬렌』으로 하여금 쓰라린 세상의 사람을 맛보게하엿다. 수 통여을 위하야 『탐슨』양대신에 청년신문기자와 동행하엿는데 여행중의 친절이 성(性)에민한 『헬렌』의 가슴에

—사랑—

의 씨로 변하기 시작하야 一九一六년 가을 집에 돌아와 잇는동안에 꽃이 피려다가 그만 피어보지도 못한채 끼어지고 말앗다.

이대목을 백이의(伯義)문오 『매 테를링크』부인으로 유명한 가수(歌手)인 『쇼 지에트』

—내손—

을 쥐고 오래동안 아모말없이 앉아잇다가 부드러운 말씨로 나에게 사랑을 속삭엿답니다. 그 사람의 속 삭임에는 한없는 위안이 잇엇답니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고 때고 잇엇답니다. 그는 결혼만 한다면 아모런 난관이 잇어도 싸와 나가겟다고 말하엿는데 그의 사랑은 적당한 나에게는 태양과같은 빛을 던지는것이엇답니다. 첫사랑의 감미(甘美)한 맛에 온몸은 도취되엇엇답니다……

라、『링크』여사의 기술에 의하면 이러하다.

『난생 처음으로 차라리 죽엇드라면 소원을 풀것을 하고 생사의 쓰라린 실연(失戀)이야기를 시작하엿다.

『아! 난밤 쓸쓸히 나혼자서재에 앉아잇노라니 그가 가만히 들어와

—옛말—

그리하야 그청년은 결혼허가증까지 얻어왓엇으나 신문이떠들고 무친의 반대로 두사람은 종시 헤어지고야 말엇다. 『이사건을 설명함에는

대로『연애란맹목이다』라는말은 아로나 설명될는지 (운명) 한지요。 불행한 이야기는 모르는 ... 의 펀 꽃이엇답니다。 『이래 피엇든 꽃이엇답니다』 『헬렌』의 나이는 三十六때에 세(동양류로 헤어 이엇다。

—해방—

실연의 쓴잔을 마신 『헬렌』에게는 그후재정상으로 불여의한 바가 만하 그년후에는 『센티』산장(山莊)도 팔아버리게되엇고 그뒤와 사랑하는 어머니조차 세상을 떠나고말앗다 그러나 『헬렌』은 낙심하지 안코 활동을 계속하엿는데 그때 마침 『할리우드』의 청이잇어 『헬렌』지신의 반생을 주제로하야 (解放)이라는영화를 찍어 명우(名優)?의 역

—창안—

으로 『빈튼』에서 열린 미국맹인 사업가의 연회(年會)에서 맹인을위한 중앙연락기관으로서 미국맹인협회(米國盲人協會)를 창립하엿는데 초대로부터 금일까지 『M·C·미글』씨가 회장의 직을 맡아보고 잇다.

『헬렌』과 『설리밴』여사는 이단체의 기부금모집을 위하야 一九三○년까지에 백二十三개 도회에서 二백四十九회의 집회를 열어 二十五만인에게 연설하야 하로밤에 四만二천불(弗)의 기부금을 얻은 때도잇엇다.

이같이 『헬렌』여사는 시종 一관하야 맹아교육운동에 계속활동중으로 인류전체는 모름지기 이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것이다(계속)

그후 『헬렌』은 자기의 생활과 운동을 위하야 돈을 벌려고 『보드빌』(미국특유의 흥행물)에 나가 四년간이나 순회강연을 하엿다。이당시는 참으로 『헬렌』의 고난시대라 할수잇다。一九二一년 『펜실베니아』맹인협회 회장 『H·랜돌프·나취머』씨의

【헬렌여사와그싸인】

(사진은 범인과 산처한 장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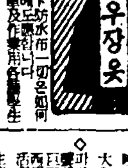
相思九百里

날두고진정참말

빅다—

朴丹心

新民謠 ……劇研究會사롱가



雨衣都散賣

우장옷

朝鮮防水布所

男女 淋疾

藥茸五淋錠

여러분의 사랑하는 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읍니까 雨期는 이로부터올시다

本報京販

吸血鬼退治

ハイナシン

君不見山東胡白菜乎아

通信大賣出

注文方法 迅速調應

包頭連

純支那 是乃四貫技 種胡白菜

山東農園

勿驚!

그날그날

第一劇場

平原兒

東海の顔役

光武劇場

방아타령

風雲兒

人類의破滅

團成社

優美館

문둥병

巡査看守(講義錄)

鮮滿警察學會

몬푸랑의王者

템플의愛國者

코—린

地獄

바디의써커—스

珍發明家

訃告

崔診爽氏以老患今七月九日(陰六月二日)午前八時別世玆以告訃

昭和十二年七月九日

發喪所	平壤府上需里
葬地	平壤府外
發靷	七月十二日 陰六月五日 午前十時
永訣式場	安息日會

嗣子 崔

主喪 孫

護喪

鏡錫秀惠致致致診診影榮潤喜載水禎應志應

崔診爽

李權金李康鄭郭

(銘花飾飽環廟)

遠禎雄文周白——在永德洙泰張健

平壤府民熱望하는 第二人道橋架設

工費四百萬圓으로明年부터着工

【平壤】 평양二十만부민의 수년래 숙망인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

仁川松峴町撤去問題

死守냐? 買收냐?

대책강구회에서 교섭키로 결정

【仁川】 누보(既報)=인천송현정(仁川松峴町)이七十三번지 대 五十三호(세대수百여세대)의 철거문제에 대한 주민측의 대책강구는 기보한바와 같이 九일오후 八시반부터 동구내에 화신당(大和食堂)에서 회합하고…

暴落一路의 土地價

土地側唐皇

仁川夜市百餘店舖

來週早日開市

【仁川】 기보한바와같이 인천상공회로 인가된 야시는 드디어 지난十일부터 개시하게되었다…

春川地方에喜雨

【春川】 오래동안 한발(旱魃)로 인하야 농촌에 생활(生活)을 위협해오든중 지난八일부터 일제히 나리었다…

春川 二八、六미리 江陵 六…

百濟博物館建設計劃

歷史的實物을陳列

【公州】 공주는 거금 一천八백여년전 백제(百濟)의 고도로서 가장 심원한 력사와 고적(古蹟)이 거의 각처에 남어있는 도시이다…

平壤飛行聯隊

步哨의 銃을 奪取

大格鬪끝에 犯人逮捕

【平壤】 지난 十일 오전 三시경 부외 대동강면(大同江面) 비행제六련대(飛行第六聯隊) 부근을 배회하는 괴한을 보초가 발견…

仁川敷島遊廓中島

兩名脫出

調定된所得額이 七百九萬圓

人數와 稅額이 激增

光州稅務署의 調査

【光州】 광주세무서에서는 소화十二년도 제三종소득세를 조정하기 위하야 …

新義州初等教育

第三普校新設決定

官鹽때문에

民間에 大打擊

鎭南浦에 設置될

日滿 막네슘 工場

電力問題解決

商工、府會、期成會活動으로

阿片密輸者

압수한 아편이 二만량

陜川署서 檢擧

【陜川】 경남 합천(陜川)에서…

今年豊作을 豫想

讀者慰安映畫의 밤

世上은 괴롭다!

靑年 鐵道自殺

鎭南浦警察에서

各飮食店臨檢

風紀紊亂으로

내 살된 아이

파리통에 너미지

복부파렬로 생명위독

깡의 성어떼 橫行

鱷漁業打擊

水揚高全無、漁村閑散

여름철 鐵路에 注意!

甘睡든 農夫轢死

論山、江景間線路에서

【大田】 지난 十일 오전 一시二十분 호남선 논산, 강경(湖南線 論山、江景)간을 대전출발의 임시열차가 통과할 즈음…

竹川消防組幹部選擧

三西面工事場에

人夫殆不足

咸南北兩道의 警備道路開設調查

永興聖峴江下流閉塞으로

八萬坪農土에 危險!

「드레지」會社 砂金採取工事때문에

關係農民 道當局에 陳情

【咸興】 영흥군 영흥(永興郡 永興)…

日窒工事場에서

人夫一名又復重傷

咸北會文市에

赤痢大猖獗

時局不安을 利用한

假會社欺詐事兼

山内面松亭市

創設十週年紀念式

라디오

七月十一日(日)

第二放送

七月十二日(月)

第一放送

第二放送

消息

남편의 방탕은 부인의 약한 탓

부인병의 고통을 참는 것은 부인의 잘못

병원에 가지안코도 자기집에서 남몰내 손쉽게 곳칠수가 잇스니 이치료법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수술하기 전에 꼭 명지모를

(柴田病院院長談)

혼자서 깨다를만한 부인병증세와 치료법

이신문을

藥價

명지모의 약효

命之母本舖·笹岡藥房

포리타민

体力精力을增進함

아미노酸製劑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四百五十餘醫學博士推奬
官公私立大病院處方

他强壯劑에比하야 優秀한獨自의作用

포리타민은 牛乳蛋白을原料로해서 胃腸消化와같이 酵素로써 消化한것으로血液原、筋肉素、發育素、食慾素、活力素、호르몬素等 各種 有效 아미노酸을 豐富히 含有하고 있읍니다。따라서 原料그대로의 粗纖維、未消化性 營養劑와는 全然 本質을 달니한것으로 다음과같은 特長이 있읍니다。

(1) 消化가 不必要하므로、胃腸이 弱한분에게도 榮養價値가 큽니다。

(2) 細胞를 賦活하고 新陳代謝를 [illegible]하야 抗病力을 增進합니다。

(3) 消化液의 分泌를 促進하고 食慾을 增進하며 胃腸을 [illegible]합니다。

虛弱、貧血、腺病、榮養不良에
病弱小兒、慢性疾患、[illegible]病에
[illegible]、神經衰弱、皮膚病에
[illegible]、病後[illegible]、產前產後에
肺結核、[illegible]、肋膜炎에
小兒、婦人의[illegible]、[illegible]에
[illegible]에

(液狀單味) ポリタミン (小瓶 [illegible] 中瓶 [illegible] 大瓶 [illegible])
ヨード・ポリタミン (小瓶 [illegible] 中瓶 [illegible] 大瓶 [illegible])
アルゼン・ポリタミン (小瓶 [illegible] 中瓶 [illegible] 大瓶 [illegible])
キナ・ポリタミン
グアヤコール・ポリタミン
ポリタミン錠 (小瓶 [illegible] 大瓶 [illegible])
粉末ポリタミン (100瓦 [illegible])

▼主効▲
結核体質 諸病衰弱 胃弱 食慾不振 貧血 精力減退 手術後 產前產後 虛弱兒 榮養不良

闘病의要訣은榮養의充實에잇다

如何한病을 治療함에나、우리의身體에 具備해잇는 病을自然히 [illegible]하는힘을 無視해서는決코治療의完全을期하기는 어렵습니다。特히慢性의 疾病으로에 쓰시는분과 胃腸이나빠서 滋養이몸에 붙지안는분은 반드시 이自然治癒力의 [illegible]을 圖하지안흐면 안됩니다。그러면 이힘을增生함에는 如何히하여야 조흘가? 그러케함에는 榮養의充實이 第一입니다。그러고 榮養의充實을 圖謀함에는蛋白質、脂肪、含水炭素、비타민等의 [illegible]給이 必要함은 勿論이려니와、就中

肺結核患者

其他의 [illegible] 始하야手術後、[illegible]後、產後等의 [illegible] 榮養이不足하야、[illegible]弱兒童에잇어서가 [illegible]한榮養源은蛋白質입니다。

蛋白質은 우리의 [illegible] 筋肉을 만드는 [illegible]서、他榮養素로는 [illegible] 代用이안됩니다。따라서蛋白質이 不足하면 必然的으로身體가 衰弱하야 自然治癒力의 減退를 招來하는것입니다。

榮養補給의目的

으로從來、肉類、鷄卵과牛乳[illegible]蛋白質性食品이[illegible]이겟읍니다。

그러나 蛋白質은 그대로의 [illegible]는 決코 榮養이되지안코、반드시胃腸에서 消化되어 아미노酸이 되고야 [illegible]는 要素로 變化하지 안흐면 [illegible] 吸收치안습니다。

故로多少라도胃腸이나 [illegible] 처럼어든 蛋白質로多分히 消化되지안흐므로 [illegible]다。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 [illegible]로보다는消化가다된 아미노酸을 [illegible] 이一層有效합니다。

그러고 아미노酸은 [illegible] 할뿐아니라

全身細胞를賦活하는

獨特한作用을 가지고잇음으로 [illegible] 旺盛히하야 全身의抵抗力을 [illegible] 을自然治癒力과아울러 增進합니다。

포리타민이 補血榮養劑로서 [illegible] 進劑로서 現代醫學界에 [illegible] 病者、虛弱者間에 斷然 第一位의 [illegible] 는所以는 實로如斯한效力이 有하야 아직 그類가없는 아미노酸製劑인까닭입니다。

發賣元 [illegible]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illegible]
製造元 大阪市堀上通 大五製藥株式會社

[illegible]